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예수님의 재림—전능하신 하나님이 국도(國度)시대에 발표하신 말씀(발췌문)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은 지 한두 해만이 아닐 것이다. 이 몇 해의 생애에서 혹시 너는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혹시 너는 별로 고통을 받지 않고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며, 혹시 너는 고통도 받지 않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아주 평범하게 생활하였을 것이다. ○ 어떠한지 간에, 너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 교통신을 해보자. ○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보는 각 사람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각 사람을 겨냥하여 말한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각 사람을 겨냥하여 말한 것이지, 하나님을 시인하거나 시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겨냥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 만일 내가 하나님이 대중을 향하여 말한 것이고 세상 사람을 향하여 말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는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다면 너는 모든 언어를 자기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고, 언제나 자기를 이런 언어 이외에 놓지 말아야 한다. ○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우리 집안의 일을 좀 이야기해 보자!

너희들은 현재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함의를 깨달아야 한다.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을 믿는 데에 내포된 뜻은 모두 너희들의 적극적 진입과 관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실질을 해부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다른 일면으로부터 너희들을 인솔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영원토록 너희들의 본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영원토록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충심을 자랑할 것이다. ○ 가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만일 너희들의 마음 깊은 곳의 누추한 물결을 파내지 않는다면, 너희 각 사람은 모두 면류관을 자기의 머리에 쓸 것이고 모든 영광을 다 자기에게 돌릴 것이다. ○ 너희들의 오만 자대(自大)한 본성이 너희들을 부추겨서 자기의 양심을 배반하게 하고, 너희들을 부추겨서 그리스도를 거역 대적하게 하며, 너희들을 부추겨서 너희들의 그 추악한 물결이 드러나게 하여 너희들의 존심, 관념, 사치한 욕망, 탐욕스러운 두 눈을 빛 속에 폭로시킨다. ○ 그러나 너희들은 오히려 말끝마다 한평생 그리스도의 사역에 열중하겠다고 외치고, 말끝마다 그리스도가 이전에 말씀하였던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되풀이하고 있다. ○ 이런 것들이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너희들의 '아무런 뒤섞임도 없는 믿음'이다. ○ 사람에게 대한 나의 요구는 예로부터 매우 엄격하였다. 만일 너의 충심 속에 존심(存心)이 있고 조건이 있다면, 나는 오히려 너의 소위 충심을 거절한다. 그것은 내가 사람이 존심으로써 나를 기만하고 조건으로써 나에게 토색하는 것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사람이 나에게 충심무이(衷心無二)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믿음' 글자를 위한 것이고, 모두 '믿음' 글자를 검증 받기 위한 것만을 희망한다. ○ 나는 너희들이 갑언이설로써 나의 기쁨을 얻으려는 것을 미워한다. 내가 너희들을 줄곧 진심으로 대하였기 때문에, 나는 또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으로써 나를 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믿음'을 언급하면, 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고통을 받을 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조금도 없는가? 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육신임을 시인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에 대하여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를 논단하는가? 무엇 때문에 언제나 그의 행적을 엿보는가? 무엇 때문에 그의 안배에 순복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일할 때 그의 언어를 준칙으로 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그의 제물을 토색하고 훔쳐 가지는가? 무엇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지위에 서서 연설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의 역사와 말씀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가? 무엇 때문에 감히 뒤에서 그를 모독하는가? 등등 이런 것이 바로 너희들의 '믿음'인가?

너희들의 말과 행동에서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분이 드러나고 있으며, 너희들의 일하는 동기와 너희들의 일하는 목표에도 불신의 성분이 가득차 있으며, 심지어 너희들의 눈길에도, 내쉬는 숨결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분이 섞여 있다. ○ 가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희 각 사람은 매 일분간에도 '불신'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리하여, 너희들은 시시각각 그리스도를 배반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온몸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혈액이 주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길에 밟은 발자국은 참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걷는 것은 착실한 것이 아니라, 그러저러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 그리스도가 한 말씀을 너희들은 언제나 반신반의하고 즉시 실행할 수 없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원인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제나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원인이다. ○ 그리스도가 한 사역에 대하여 언제나 믿기 어려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며, 그리스도가 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다 견해가 있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관념을 버리기 어려워하는 등등 이런 것은 모두 너희들의 마음속에 섞여 있는 불신의 성분이다. ○ 너희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르면서 지금까지 뒤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매우 많은 패역 성분이 뒤섞여 있다. 이 패역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의 뒤섞임이다. ○ 혹시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겠지만, 만일 그중에서 자기의 존심을 인식할 수 없다면 너는 꼭 멸망될 대상이다. ○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사람은 그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니, 그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욱이 그를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분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더욱이 심판을 좋아하지 않으며, 세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한다. 이러한 사람을 세력파라고 한다. ○ 그들은 전적으로 세상에서 세력이 있는 그런 파벌만 찾고, 전적으로 신학교를 나온 목사와 교사만 찾으며, 진리의 도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반신반의하고 온몸과 마음을 투입할 수 없다. 임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화비(花費)한다는 글귀를 말하지만, 눈은 큰 목사와 큰 교사를 주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 그들의 마음속에는 명리와 영예가 가득차 있다. 그들은 작디작은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들은 진토와 거름더미에 있는 이 작은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 그들은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라면 하늘땅이 뒤집힐 것이고 사람들이 실컷 조소할 것이라고 여긴다. ○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여 온전케 한다면 그 큰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 ○ 그들의 관점에는 불신의 성분이 뒤섞여 있는데, 어찌 불신뿐이겠는가, 그들은 그야말로 이치로써 이해시킬 수 없는 짐승들이다. ○ 그들은 다만 지위와 명망을 중시하고 세력을 중시하고 방대한 집단과 파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눈에 두지도 않는다. 그들은 본래부터 그리스도와 진리와 생명과 배치되는 배반자들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비미(卑微)를 양모하지 않고 지위가 대단한 그 거짓 목자들을 숭상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과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과 야합하는 그 음탕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머리 둘 곳 없는 고통을 비웃기만 하면서 제물을 약탈하고 주색에 빠져서 생활하는 그 시체들을 탄복하며,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경기를 원하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품속에 안기기를 원한다. 비록 그들이 너에게 공급하는 것이 다만 육체이고 다만 글귀이고 다만 관제일지라도. ○ 현재에도 너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에게 향하고 있고, 그들의 명예에 향하고 있고, 사탄의 심중에 있는 그들의 모든 지위에 향하고 있고, 그들의 세력에 향하고 있고, 그들의 권세에 향하고 있다. 너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하여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이래서 나는 너에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 ○ 내가 오늘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부득이한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 하나 하나의 높고 큰 형상이 영원히 우뚝 솟아 있기에, 너는 그들의 일일일행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언어와 그 두 손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고지상한 자이고 영원히 영영인 것이다. ○ 그러나 오늘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는 영원히 너의 마음속의 미소한 자이고, 영원히 너의 마음속에 경외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그가 너무 평범하기 때문이고 그의 권세가 너무 작기 때문이며 그가 너무 높거나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진리를 중요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모두 불신파라 하고 모두 진리의 배반자라 한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다. ○ 현재 너는 너의 몸에 불신의 성분이 얼마

있는지를 찾아냈는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성분을 얼마 찾아냈는가? 나는 네가 진리의 도를 선택한 이상, 온 몸과 마음을 다 투입해야 하고 우유부단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한다. ○ 너는 하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진실로 그를 믿는 각 사람에게 속하고 그를 경배하는 각 사람에게 속하고 그에 대하여 일편단심인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너희들 몸에는 아직도 불신의 성분이 많이 있으니, 너희들이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면 꼭 답안을 얻을 것이다. ○ 네가 진정한 답안을 얻었을 때, 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충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 이때가 되면 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 이날이 올 때면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된다. ○ 현재 너희들의 믿음은 다만 30%이지만 의혹은 오히려 너희들 심령의 70%를 차지한다. ○ 그리스도가 매 한 가지 일을 하고 매 마디 말씀을 할 때마다 너희들이 그에 대하여 관념과 견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관념과 견해는 바로 너희들이 전혀 그를 믿지 않아 초래된 것이다. ○ 너희들은 하늘 위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양모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것은 여전히 너희들의 불신이 아닌가? 너희들은 지난날에 사역한 하나님만 그리워할 뿐,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면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영원히 너희들의 마음속에 섞여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다. ○ 나는 결코 너희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불신의 성분이 너무 많고 해부해야 할 잡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잡질은 바로 너희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표징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기호이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낙인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의 수건이며,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얻어지는 데 있어서의 간격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데 있어서의 장벽이며,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증거이다. ○ 현재 너는 그래도 너희들의 모든 생활을 한번 성찰(省察)해보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유익한 점이 있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에서 발췌

국내 각 신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말씀이 게재된 기록		
간행물 명	게재일	게재 내용
《조선일보》	2013년 1월 12일	● 《하나님의 나타남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다》
	2013년 1월 23일	● 《'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다시 돌아왔다》
《중앙일보》	2013년 1월 15일	●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린다-국도의 복음이 곧 전 우주에 확장될 것을 예언한다》
	2013년 1월 24일	●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동아일보》	2013년 1월 15일	● 《하나님은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고 있다》
	2013년 1월 17일	● 《네가 예수의 영체를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이 하늘땅을 새로 바꾼 때이다》
	2013년 1월 19일	●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베풀어 줄 수 있다》
	2013년 1월 22일	● 《그리스도는 진리로써 심판의 사역을 한다》
	2013년 1월 24일	● 《너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도를 찾고 구해야 한다》
	2013년 1월 26일	● 《너의 귀속을 위하여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로 <http://kr.kingdomsalvation.org/news.html>

전면광고

국도시대 하나님 말씀, 국도시대 새노래, 말세의 방주, 마지막 티켓, 국도복음 간증문답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는 분들에게 값없이 드립니다

문의전화

010-4993-8291, 010-4968-2791, 010-4998-2691, 070-7516-7062

<http://kr.kingdomsalvation.org>
<http://www.godfootsteps.org/en>
 footsteps2013@gmail.com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